

내 고향, 고성은 산수가 수려한 곳이다. 바다와 산과 호수가 어우러지고 백두대간의 줄기를 따라 내려 온 산자락은 골짜기마다 많은 시연들을 머무랄 처럼 알알이 담고 있다.

오래전부터 만해 한용운 시인을 비롯해 문인들의 발자취가 서려있는 이곳에 지난 2월 26일, 고성문화의집에서 '고성문학회가' 창립총회가 있었다.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해 많은 내빈들께서 오셔서 창립을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

'고성문학회'가 창립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문학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2008년 봄부터, 몇몇의 문우들은 고성에도 문학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갖기 시작했다.

글을 통하여 서로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문화의 꽃을 피우며 소박한 삶의 이야기들을 문학이라는 동지 안에서 공유하고 싶어 하였다. 또한 문학에 소질을 가진 2세들에게 문학적 재능을 길러주고 북돋아 줄 산실이 필요함을 절감하였다.

이 같은 생각들은 공감대를 더해 갔다. 3여 년 동안 문우들이 계절마다 만남을 가지며 이야기는 진지하여졌고 드디어 지난 2월, 이선국회장님의 주선으로 고성문학

출향인 칼럼

황연옥

시인, 고성문화회 부회장



아름다운 동지

회 창립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의미 있는 첫 걸음이었다.

지면을 빌어, 부족하나마 필자가 그날 고성문화회 창립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써서 낭송하였던 축시를 소개한다.

멀리 산마루 잔설이 은빛으로 빛나고
나무마다 물 울리는 소리 들려오는 계절

노란 햇살이
실개천 버들개지 위에 머무르다
바람소리에 놀라 자리를 비키면
어디선가 찰랑거리는
도랑물 소리 들려옵니다.

"고성문학회"

향로봉에서 불어오는 솔바람이
바다로, 호수로, 들녘으로 불어와
큰 꿈을 태동시켰으니
산수 수려한 이 땅의 향기를
찬란한 그리움으로 풀어 올리세.

역사의 상흔 해풍에 날려 보내고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소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갈무리 하여
문학이란 그물에 건져 올리면
산은 웃고, 바다는 노래하리.

통일의 그날,
명파리에서 용촌 마을까지

후손들에게 남겨줄 푸른 씨앗이 되리니
아, 겸허한 은총이여래!

여기, 흰 눈 녹은 양지녘에서
정갈한 봄 옷 갈아입고
들녘에 울려 퍼지는 힘찬 맥박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 보세나
산이 웃고, 바다가 노래하는 소리를.

-「산은 웃고 바다는 노래하리」 전문

이제 새들이 날아와 깃들일 동지가 마련되었다. 이 동지를 잘 가꾸고 보전하여 오래도록 청아한 노랫소리가 들리게 해야 할 책임은 회원들과 고성문학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몫이라. 문학은 글을 쓰는 사람과 글을 읽고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아름답고 의미가 깊어진다.

문학이라는 악보를 통해 한 목소리로 노래 부를 수 있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찾아와 마음 편하게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동지였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오래도록 산이 웃고, 바다가 노래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동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가득하다.

● 박형수 변호사의 생활법률



외상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문) 저는 갑에게 건축자재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오던 중, 갑이 외상대금 700만원에 관하여 건축공사가 적자였다는 이유로 갚지 않습니다. 위 건축자재 판매의 최종거래가 있었던 것은 2년 6개월 전이지만 3년 전에 공급한 건축자재도 있는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외상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답)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

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

대금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권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면 채권이 소멸되어 물품대금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사안과 같은 계속적 물품공급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의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것이지 거래종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갑의 건축공사가 끝난 시점에서 외상대금 모두를 정산하여 지급 받는다는 등의 특약이 없다면, 3년이 경과된 외상대금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평택촌놈의 종목분석

기아차(000270)

최근 국내 증시는 각종 악재로 인해 하락세를 치르고 있다. 얘기치 않은 리비아 사태가 시발점이 되었고 여타 중동 국가들로 확산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유가는 중동 發 악재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물가 불안과 더불어 기업 채산성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하루빨리 중동사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며칠 전에는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속속 발표되는 피해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상흔을 치유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일본 지진 사태를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첨예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산업이 많기 때문이다. 실례로 지진 발생 후 개장한 서울 증시는 철강, 화학, 전기전자 업종 등이 초강세를 보이며 시장 반등을 이끌었다.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



정오영

평택촌놈투자전략연구소 대표

인 셈이다.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으로선 이번 일본 지진 사태가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LCD를 비롯한 화학, 자동차 등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오늘은 자동차 관련 기업 중 기아자동차

를 소개하고자 한다. 기아자동차는 과거 IMF사태를 겪으면서 현대차로 흡수되었다.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현대차가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고 그 뒤를 동생인 기아차가 따라가고 있다.

미국 發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자국 내 자동차를 비롯한 산업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당시 국내 자동차 산업은 오히려 수혜를 톡톡히 봤다. 엄청난 수출 물량 증가와 함께 세계 시장에서 현대차와 더불어 기아차의 브랜드 인지도가 향상되는 등 미국 금융위기는 국내 기업들에게 도약의 장이 되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

율은 10% 수준이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시장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번 일본 지진 사태 역시 국내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앞으로 자동차 시장 판도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점하는 기업이 향후 글로벌 시장 점유율 판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의 질주를 기대해 보자.

-홈페이지 www.502.co.kr

(한글주소 : 평택촌놈)

-전화 031-651-5023

-이메일 502in@naver.com